

경피적 근전도 유도하 교원질 주입술을 통한 성대구증의 치료성적

김형태\*, 조승호, 김민식, 선동일, 유우정  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**배경** : 성문폐쇄부전을 나타내는 질환 중 성대구증은 음성개선을 위한 치료면에서 가장 어려운 질환중에 하나다. 성대구증의 음성개선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수술적 방법과 보형물의 주입술이 이용되고는 있으나 만족할 만한 음성개선을 얻기는 힘들었다.

**목적** : 진행된 성대구증 환자의 성문폐쇄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본 교실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피적 근전도유도하 교원질주입술의 치료성적 및 음성 및 음향학적 추적결과와 술기의 유용성에 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**재료 및 방법** : 1998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성대구증으로 경피적 근전도 유도하 교원질 주입술을 시행받은 14명중 3개월이상 경과된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가 8명 여자가 4명 이었으며, 평균연령은 29.3세(19-40)였다. 교원질의 재료로는 10례에서 자가교원질을 이용하였으며, 2례에서 Artec [polymethyl-methacrylate with 3.5% collagen solution]을 이용하였다. 시술 후 3개월, 6개월 때 음성분석 및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를 시행하였다.

**결과** : 주관적 음성개선도에서는 8명의 환자(67%)에서 음성개선이 있었으며, 음성분석상 장기추적 결과 모든례에서 frequency perturbation이 감소하고 H/N ratio가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amplitude perturbation은 증가하였다. 평균호기율은 감소하였으나 최장발성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성문하압력은 증가하였다. 후두 스트로보스코피상 성대의 폐쇄부전은 호전되었으나 점막파동의 개선은 4개월 이후에 호전되었다.

**결론** : 경피적 근전도 유도하 교원질 주입술은 성대구증치료에 초기치료로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, 수술로서도 음성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양측성 진행된 성대구증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생각된다.